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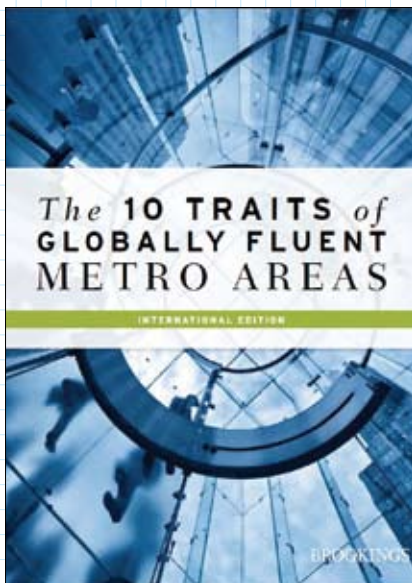
글로벌 기업 경쟁력 변화에 따른

도시들의 기회와 대응

송미경 연구원
서울연구원



어반 월드 :
글로벌 비즈니스 지형의
대변동
맥킨지, 2013



국제적으로 유능한
메트로 지역의
10가지 특성
브루킹스, 2013

지난 2013년 10월 맥킨지와 브루킹스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놓았다. 맥킨지는 ‘어반 월드: 글로벌 비즈니스 지형의 대변동(Urban World : The Shifting Global Business Landscape)’에서는 2025년에는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 45%가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는 놀라운 예견을 발표했다. 맥킨지에 따르면 신흥도상국의 기업들이 경제적 발전과 급격히 확대되는 소비시장을 기반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오랜 역사를 가진 서구 중심의 글로벌 기업 파워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브루킹스는 미래에 대도시들이 지역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이미 글로벌한 상태에서 성공을 거둔 40개 도시들을 분석하여 ‘국제적으로 유능한 메트로 지역의 10가지 특성(The 10 Traits of Globally Fluent Metropolitan Areas)’을 발간하고 도시 지도자들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10가지 전략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분석된 40개 성공 도시 사례 중 부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브루킹스 보고서는 미국 대도시 지도자들에게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언하는 ‘글로벌 도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3년 6월에 발간되었고 이후 런던 싱크탱크인 런던센터(Center for London)와 협업하여 인터넷내셔널 버전으로 발간하였다.

따라서 이번 호 해외보고서는 이 두 개 보고서를 함께 소개하여 미래 도시들의 지형 변화를 글로벌 컨설팅 기업들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도시정책가들이 유념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소개하고자 한다.

어반 월드 : 글로벌 비즈니스 지형의 대변동

‘어반월드(Urban World)’라는 제목은 우리 미래에 도시가 미칠 영향력을 예언하는 듯하다. 이 보고서는 연수익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현황과 소속 국가와 500대 다국적 기업의 본부 및 회사 위치 두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오늘날의 글로벌 비즈니스 지형을 살펴보고 2025년의 글로벌 비즈니스 지형을 예측하고 있다.

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실로 놀랍다. 예를 들어,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글로벌 기업 중 신흥지역의 기업은 2000년에 5%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에는 17%로 성장했고 2025년이 되면 무려 45% 이상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한다. 또한 오늘날 연 수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 8,000개 중 73%가 선진 지역에 위치하는 반면, 10년 뒤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7,000개 기업 중 70%가 신흥지역에 기반한 기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는 일본과 한국기업이 급격하게 성공한 점을 주목하고 있어 우리가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곳은 중국 지역권이다.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 마카오, 타이완까지 포함하는 중국 지역권은 새로운 글로벌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맥킨지는 2025년에 새롭게 등장할 신흥지역의 기업 5,000여 개 중 40%가 중국 지역에서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럼 이러한 글로벌 비즈니스 지형의 변화가 해당 국가와 도시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떨까? 이것이 맥킨지에서 눈여겨본 두 번째 사안이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제목에서 함의하고 있고 ‘세계와도시’에서 소개하는 여러 자료에서 주장하듯이, 미래는 ‘도시의 세상’이 될 것이라 한다. 이들은 세계적인 도시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부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본부의 위치, 앞으로 이머징 시장에 대응하는 위치에 대한 전략적 접근 등을 인디케이터로 활용하여 미래 도시들의 기회를 분석했다.

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로 다국적 기업의 본부들

맥킨지, 어반 월드의 조사지역

맥킨지는 총 180개국을 조사했으며 이를 4개의 선진지역과 6개의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표1 맥킨지, 어반 월드의 조사지역

구분	지역권	국가
선진 지역 (24국)	호주 지역권	호주, 뉴질랜드
	동북아시아	일본, 한국
	미국과 캐나다 지역권	미국, 캐나다
서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중국 지역권	중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
신흥 지역 (156개국)	서유럽과 중앙아시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폴란드,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총 31개국
	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몰디브, 스리랑카, 부탄, 네팔
동남아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7개국	
아프리카와 중동	알제리, 앙골라, 베넌, 가나, 수단, 통고, 탄자니아, 우간다, 세네갈,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UAE, 예멘 등 총 66개국	
라틴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우르과이, 쿠바, 아이티, 파나마, 과테말라 등 총 30개국	

은 지금과 같이 소수의 주요 도시에 모여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날 연수익 10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의 약 33% 이상이 주요 20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일본이 600여개로 압도적으로 큰 허브이며, 뉴욕, 런던, 오사카, 파리가 150~200여개, 베이징, 모스크바, 서울, 라임-루르(Rhine-Ruhr), 시카고가 각각 100개 이상의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신흥 도시의 경우 중국 지역권 도시와 싱가포르가 20위권 도시 내에 속해 있다¹⁾.

반면, 해외 자회사의 경우는 클러스터를 이루며 모여있긴 하겠지만 다양한 허브도시에 분산되어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리고 신흥지역에 주요 도시 지형은 이러한 자회사들이 어디에 허브를 이루느냐에 따라 완전히 뒤바뀌지도 모른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상파울로의 경우 2025년까지 대기업 개수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이징과 이스탄불도 대기업 본부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도 수천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신흥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 280개 신흥도시들이 대기업의 자회사를 새로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오늘날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아시아 지역에는 싱가포르(대륙 전체의 50% 이상), 라틴 아메리카에는 상파울로(대륙 전체의 23%)에 위치하는 등 대륙별 몇몇 주요 도시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 도시지형 변화에 지대한 변화가 예견된다고 한다.

따라서 신흥 도시들이 자회사 유치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이니 도시들은 비즈니스 환경, 삶의 질, 다문화 환경, 주거환경, 벤처 환경 등을 조성하는데 힘을 써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야한다고 조언한다.

국제적으로 유능한 메트로 지역의 10가지 특성

그럼 각 도시는 어떻게 이러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까? 글로벌 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 브루킹스는 40여 개의 글로벌화에 성공한 대도시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럼 브루킹스가 제시하는 글로벌하게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특징은 무엇일까?

브루킹스는 이러한 역량은 하루 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도시들이 국제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노력과 정책이 크게 인식

- ① 국제적 시각을 보유한 리더십이다.
 - 지방자치단체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이러한 리더십을 보유하고 도시가 가진 국제적인 역량과 잠재력을 보여주었다고 조언한다.
- ② 국제 관계를 지향하는 역사적 유산이다.
 - 몇몇 도시들은 지역적 위치, 크기, 역사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국제 관계가 초기부터 형성되었고, 다문화적인 환경을 배양시켰다고 한다.
- ③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이다.
 - 특징적인 산업을 통해 초기에 글로벌 사회에서 자리잡게 되면 다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 ④ 국제적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다.
 - 도시는 국제 시장에서 그들의 위치를 유지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지식과 혁신을 중요시하는 문화이다.
 - 점점 지식 지향적인 세계가 되면서 국제 사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론, 물건과 기술을 생성할 수 있는 고급의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 ⑥ 세계가 주목할만한 매력있는 기회가 있다.
 - 도시가 매력이 있고, 기회가 많으며 개방적인 도시는 사람과 기업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 ⑦ 국제적으로 잘 연계된 인프라 네트워크가 있었다.
 - 잘 설계된 모던한 인프라를 통해 사람과 상품을 국제 시장에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 ⑧ 전략적 우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보 역량이 있었다.
 - 다양한 국내와 국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투자를 유지하는 것은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시키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⑨ 정부가 국제적 역량을 가능도록 기능했다.
 - 중앙정부와 중앙 정부가 독특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과 대도시권에 '세계화' 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 ⑩ 분명한 글로벌 정체성이 있었다.
 - 도시는 매력있는 글로벌 정체성을 마련하여 국제 시장에 도시의 가치를 높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지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ware), 지향(oriented), 유능한(fluent) 3단계를 거쳐서야 비로소 발전할 수 있고 어느 도시든 꼭 거쳐야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자기 지역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서울도 한번쯤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10가지 잣대에서 서울시의 역량을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다. [W](#)

1 베이징 6위, 모스크바 7위, 홍콩 11위, 태국 12위, 싱가포르 20위 만이 상위 20개 도시 안에 속해있다.